

격 려 사

세상의 만물이 생명의 향기로 단장하고, 우리 또한 희망의 봄소식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마음 깊이 따뜻함을 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진력을 다했던 비티엔이 어느새 스무 번째 봄소식을 맞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비티엔의 쉽지 않았던 지난 시간 동안, 영상포교 발전에 원력을 다하셨던 대덕스님들께 공경의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이루셨던 성우 대종사님과 구본일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불교사에서 지금까지의 20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를 위한 반석의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불교티비가 긴 시간을 감내하며 불교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내 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비티엔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영상포교라는 일념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자들에게 필요한 자리를 올곧게 안내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무 살의 의미는 곧 성장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스스로 정토의 향기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불자와 사회의 곁에 늘 함께하겠다는 의지 또한 든든해 보입니다.

나아가 불교계의 현안에 솔선수범하여 불자들을 한마음으로 아울렀던 노고는 여러 종단과 불자 모두가 기억하는 공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 구호사업을 내일처럼 앞장서며 종단의 여러 공익사업을 함께해준 고마움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현시대와 시청자는 고도화된 방송기술을 넘어 종합미디어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며 혁신을 이루어 왔듯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자의 축복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는 비티엔의 정진은 전통문화와 문화정신의 강조,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공익성 중시를 통해 종교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우수한 선례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회의 행복과 감동을 조화롭게 전해주길 바라며, 한국불교의 신행문화 또한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비티엔은 지난 20년의 역사와 기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역사 1700년의 거룩함을 담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진력으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침 올해는 연등회와 더불어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와 간화선 무차대회를 봉행하며, 여러 종단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화합속에서 미래불교를 위한 공의를 모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잘 살피어 많은 분들에게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마다 참다운 삶을 담아온 가르침과 감동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께서 청안함으로 증명해주신 비티엔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미래불교를 이루어 가는 길에 언제나처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년 3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